

FCST 음양균형장치를 활용한 요골신경마비치료의 증례보고

김영판^{1,*}, 이상배²

¹동한당 한의원, ²이영준 한의원

A Radial Nerve Palsy Cases Managed by Yinyang Balance Appliance of FCST, a TMJ Therapy for the Balance of Meridian and Neurological System

Young Pan Kim^{1,*}, Sang Bae Lee²

¹Dong Han Dang Clinic of Korean Medicine, ²Lee Young Jun Clinic of Korean Medicine

Therapeutic effect of Yinyang Balancing Appliance of functional cerebrospinal therapy (FCST) for meridian and neurologic yinyang balance was observed in a radial nerve palsy case. One Radial nerve palsy case was managed with the Yinyang Balancing Appliance on temporomandibular joint (TMJ), combined with acupuncture. Clinical outcome measurement was based on subjective measures and clinical observations. The patient showed positive changes even after the initial treatment and this effect maintained over the follow-up period. further clinical and biological research on FCST is expected.

Key Words: Radial nerve palsy, YBA, FCST, TMJ, Saturday night syndrome

서론

요골동맥이란 앞팔의 바깥쪽(요골쪽)을 통하는 동맥으로 보통 맥을 짚는 동맥이며, 맥진은 보통 양 앞팔의 엄지손가락 부위의 요골동맥의 박동이 느껴지는 부위에서 본다. 맥은 촌.관.척의 세부위로 나누고, 요골경상의 돌기부위가 관, 그 말초 측을 촌, 중추측이 척이다. 양손의 촌.관.척의 여섯 부위의 각각 속하는 장부경락의 생리병리반응을 진찰하는 것으로, 손목 가까이에서는 요골전면의 피하를 알게 흐르고 있으므로 임상 상 맥박에 손을 대려면 먼저 이 동맥을 찾는다.¹⁾

요골신경마비의 원인은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손목이 처지고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명 토요일 밤의 마비(Saturday night palsy)라 부르는 요골신경마비증상이다. 팔꿈치의 바깥쪽을 지나는 요골신경이 압박을 받아 마비가 온다. 손목을 위로 올려도 똑 떨어지고 손등에 감각이 없어진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팔

을 누른 채 잠이 들면 나타난다. 토요일 밤의 마비란 말은 미국에서 유래했는데, 미국인들이 토요일에 음주를 많이 해서 나온 말인 듯하다. 술 먹고 엎드려 자거나 팔베개를 하고 잘 때도 이런 마비 증상이 생긴다. 보통 신혼여행지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팔베개를 해주다가 발생하곤 해서 “신혼여행마비(Honeymoon’s palsy)”라고도 부른다. 대부분 저절로 회복되지만 상태에 따라 몇 개월 몇 년 가는 경우도 있다.^{2,3)}

사고로 상완골절 부상 후 수술 시에는 내고정물의 위치, 종류에 따라 요골동맥마비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골수강내 고정물이라면 고정물 제거후 요골동맥마비가 올 가능성은 드물다. 하지만 상완골 중간부위의 금속판 내고정물인 경우라면 고정물 제거후 수술이 잘되고 수술시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요골신경마비가 올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경우 추후 요골신경 유착 제거술이라는 2차적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환자의 상태(수술후 상태, 근력정도, 나이, 체중, 성별, 수술부위의 골유합정도, 운동성향 등)에 따라 증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외에 당뇨가 오래 지속된 분들은 당뇨조절이 잘되지 않아서 신경병증이 생기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만 눌러도 심한 요골신경마비가 올 수 있다.

국내에서 요골신경마비에 대한 연구는 이⁴⁾, 권⁵⁾ 등에 의해 요골신경마비의 문헌적인 침구치료가 보고된 이후, 권

투고일: 2015년 11월 2일, 심사일: 2015년 12월 6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9일

*교신저자: 김영판, 08341, 서울시 구로구 오류로8길 57

동한당 한의원

Tel: 02-923-9697, Fax: 02-2683-3425

E-mail: ypk1024@naver.com

등^{5,6)}에 의해서 요골신경마비의 동서의학적고찰 및 임상적 고찰이 보고 되었고, 김³⁾ 황⁷⁾ 등에 의해 침과 전침치료를 이용하여 유의한 효과가 보고 되었으며, 임⁸⁾ 최⁹⁾ 서¹⁰⁾ 등에 의해서 봉약침, 오공약침, 어혈약침등의 약침을 이용한 치험례가 보고 되었다. 하기 환자는 수술 후 요골신경마비증이 낮지 않아, 7개월 동안 백방으로 치료하고자 수술했던 병원을 비롯하여 여러 병원과 한의원등에서 치료하였으나 실패한 환자의 사례를 구조적 치료방법인 뇌척주기능요법 (Functional Cerebro Spinal Therapy, FCST)^{11,12)}의 음양균형장치를 이용하여 유의한 효과를 얻었기에 발표하는 바이다.

증 례

1. 인적사항

유**, 남성 56세

2. 주소증

요골신경마비증(오른쪽 손목이 안움직이고, 손가락에 특히 1, 2, 3지에 힘이 없다. 피아노조율사로서 이제껏 30년간 일해 왔던 직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 시각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 10 정도였음.

3. 부소증

불면증(거의 7개월간 잠을 잘 자지 못함) VAS 10
 신경성위염(소화불량, 밥을 잘 먹지 못함) VAS 10
 간질성폐렴(객담, 목섭) VAS 10

4. 발병일

2014년 2월 6일

5. 과거력 및 가족력

허리디스크 시술 경력이 있음

6. 현병력

- 1) 우측 요골신경마비증으로 30년간 해왔던 피아노조율사 일을 하지 못하고 7개월간 쉬고 있음.
- 2) 불면증, 신경성 위염, 간질성폐렴 증상으로 시달림.

7. 초진소견

망진: 얼굴빛이 어두웠으며 피로하고 상기되어있고, 일자목과 거북목 상태가 진행되어 있음.

촉진: 이학적 검사상 상부경추의 아탈구가 촉진되고 우측경근이 긴장되어 있었음.

8. 처치

음양균형장치는 FCST의 균형측정치 검사를 활용하였으며 초진시 38/32로 측정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관찰소견에 따라 조정되었다.

맞춤형 음양균형장치(CBA)¹³⁾는 인체의 음양불균형상태에 따라 반영되는 턱관절의 불균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그때마다 새로 조정하였음. 동시에 보완적인 방법으로 경추부 도수교정, 골반교정(Pelvic Balance Therapy, PBT), 침치치를 하였으며 음양균형장치의 착용시 불편증상이 발현시는 표준형 구강장치(TBA)를 착용시켰음.¹⁴⁻¹⁶⁾

9. 경과

1) 치료일자 및 회수

2014년 8월 16일 초진(37/32)을 시작으로 8월 10회, 9월 10회, 10월 14회, 11월 5회 총 39회의 치료를 시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편차는 40/32로 마쳤음.

2)치료경과

주소증인 요골신경마비증(Fig. 1) 및 부소증인 불면증, 신경성위염, 간질성폐렴 증상(Fig. 2) 모두 호전을 보임.

망진과 절진상 2014년 초진이후 손목과 손가락의 힘이 85% 정도 회복되었고 환자자신도 이를 시인하고 나날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만족해하고 7개월 만에 피아노 조율을 하였다고 함.



Fig. 1. VAS changes of radial nerve palsy sympto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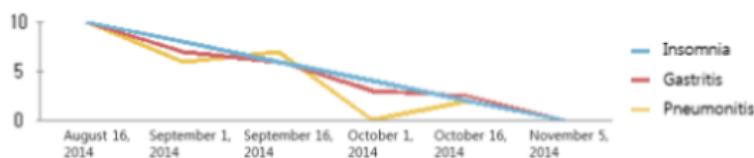


Fig. 2. VAS changes of insomnia, gastritis, pneumonitis symptoms.

고 찰

한의학에서 요골신경마비에 대한 원인을 외감풍한습열의 사기에 의해 경락에 유체되거나, 외상으로 죽은피가 응체되어 기혈의 통행이 순조롭지 못하거나, 압박을 받음으로서, 기혈운행이 방해받아 피부가 영양받지 못하여 나타난다고 하였다.⁴⁾

주소증인 요골신경마비증은 일명 토요일밤 증후군이라고 하여 토요일 밤 술을 과음후 숙취하여 자세불량으로 잠을 잔 후 발생하는 경우와 신혼마비 증후군 결혼하여 신혼 때 신랑이 팔베개를 신부에게 대주고 자고 나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²⁾ 신혼마비 증후군은 오랜 시간 팔이 놀리게 되는 경우 요골신경이 짓눌려 손목이 올라가지 않는 증상으로 손목처짐 증상과 손가락이 올라가지 않는 요골신경마비를 일으키게 된다. 또, 상기 환자와 같이 부상으로 어깨나 팔의 골절 수술후 금속결합기를 탈부착시 많이 발생하는 내반변형으로 오는 요골신경마비가 있다. 이때 사용하는 신경탐색술과 치료는 신경이 빠진 같은데 들러붙어 있으면 떼어내어 주는 유리술, 신경이 끊어져 있으면 이어주는 접합술, 신경의 결손이 있으면 신경이식술등을 하게 됨을 말한다.^{17,18)} 요골신경은 위팔과 팔꿈치를 지나는 동안 어느 곳의 압력에 의해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 위팔의 중간정도 요골신경이 뒤에서 앞으로 나오면서 뼈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취약하기도 한다. 낮은 압력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눌러 신경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수근관증후군이나 팔꿈치관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신경의 경우 매우 예민하기에 끊어지거나 베이거나 찢리는 경우 외에도 눌림만으로도 마비가 올 수 있다.²⁾ 그 외 당뇨가 오래 지속된 분들은 당뇨조절이 잘되지 않아서 신경병증이 생기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만 눌러도 심한 요골신경마비가 올 수 있다.

상기환자는 구로구 OO전철역 옆 하천자전거도로에서 마주오던 자전거를 경사진 곳에서 피하다가 전복하여 상완골절로서 광명OO병원에서 1차골결합수술, 2차금속판나사 제거수술(본인의 말에 의하면 약간의 수술정확성이 떨어져서 팔의 위치가 조금 차이진 것으로 말함.) 후에 요골신경마비 증세로 30년간 하던 직장을 7개월간 하지못하고 수술한 병원, 의원,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낫지 않던 중 지인의 소개로 FCST치료를 상기와 같이 시행하여 주증상인 요골신경마비증상은 85%의 호전을 보였으며, 주소증인 불면증, 신경성위염, 간질성폐렴(병명은 모두 구로OO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임)은 모두 소실되었다.

요 약

본 증례에서는 자전거 교통사고후 어깨골절로서 금속판나사제거수술후 주변 연부조직과 허혈성으로 요골신경마비증상에 음양균형장치(맞춤형 CBA, 표준형 TBA)를 포함한 PBT, 균형침치료 등 구조적 치료⁶⁻⁸⁾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유의한 치료변화가 나타남을 관찰하였다.

1. 주증상인 요골신경마비증상은 85% 호전되었다.
2. 부증상인 불면증, 신경성위염, 간질성폐렴 증상은 시각적상사척도를 통해 VAS 10에서 VAS 0으로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REFERENCES

1. 류지운, 김영판, 진단과 치료를 위한 변증시지 임상요강. 서울: 영림사, 1993:97.
2. 이광우, 임상신경학. 서울:E-public, 2006:628-629.
3. 김은미, 박영수, 허윤경, 송현근, 최가운, 김정호, 김영일, 홍권의, 이현, 임윤경, 내경의 독취양명이론으로 치료한 요골신경마비환자 7례에 대한 증례보고. 대한침구학회지. 2005;22(5):167-174.
4. 이문호, 김경식, 요골신경마비의 침구치료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1994;1(1):451-464.
5. 권영달, 박용현, 이종덕, 송용선, 요골신경마비의 임상적고찰. 한방재활의학회지. 1998;8(2):372-377.
6. 권영달, 송용선, 요골신경마비의 동서의학적 고찰. 한방재활의학회지. 1997;7(1):287-293.
7. 황욱, 김정신, 배기태, 남상수, 김용석, 침과 neuromuscular electrical stimulation으로 치료한 요골신경마비 환자에 대한 증례보고, 대한침구학회지. 2004;21(6):249-258.
8. 임청산, 유영진, 권기홍 침치료와 효소제거 봉독요법 집침치료의 압박성 요골신경마비환자에 대한 증례보고, 대한침구학회지. 2009;26(6):241-249.
9. 최은희 외 5명, 중성어혈약침치료를 병행한 요골신경마비환자 4례, 대한약침학회지. 2011;14(4):63-69.
10. 서정철, 이윤경, 임성철, 정태영, 한상원, 오통약침을 병행한 요골신경마비치험 1례 대한침구학회지. 2005;8(2):91-95.
11. 인창식, 고형균, 이영진, 전세일, 이영준, 침구경락음양론의 새로운 발전 기능적뇌척주요법(FCST), 대한경락학회지. 2005;22(4):169-174.
12. 이영준, 약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의학. 서울:고려의학, 2007:473-539, 616-634.
13. 이영준, 구강내 약관절장치를 이용한 요법(FCST)이 경추 정렬에 미치는 영향, 서울 포천중문과대학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14. 최근욱, 이영준, FCST의 음양균형장치를 이용한 연속성사경증 증례보고. 2012;2(1):20-25.
15. 유대길, 이영준, FCST의 음양균형장치를 활용한 뚜렛장애의 증례보고. 턱관절균형학회지. 2012;2(1):17-19.
16. 이상배, 이영준, FCST의 음양균형장치를 활용한 절결립성빈혈의 증례보고. 턱관절균형학회지. 2013;3(1):23-26.
17. 한영길, 나수균, 최창욱, 요골신경마비 및 수지신전진 손상환자의 건진이술에 의한 치료,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5;30(5):1290-1295.
18. 김승민, 선우일남, 이광수, 최경규, 최일생, 임상신경국소진단학, 서울:정담, 1999:28-29.